

고향에서 원전센터 유치를!

Wishfully, Inducing Hometown to Get the Korea RDF Project Center !



글 / 朱 昇 煥

(Choo, Seung Hwan)

방사선관리기술사, SRI, 공학박사,

한국기술사회 홍보위원,

고려공업검사(주) 연구소장.

E-Mail: choo6261@hanmail.net

주승환마당: <http://blog.daum.net/choo6261blog>

The text describes an author's column presented in a local newspaper, which includes the private warmest sentiments on the people and hometown, sending a message to try to cause the people induce that project to their district, known as one of the candidates. Since in 1986, the siting work for a potential district of the RDF(Radwaste Disposal Facility) Project Center in Korea has been struggled for almost 20 years. Unfortunately, the final district could not be fixed yet. So, during last tow years, author has been personally endeavored to do all activities in concern with that work as a pioneer and experienced in that field.

“당동벌이(黨同伐異)”

새해 벽두에 간절한 소망이 있다. 지난해, 사자성어로 밝은 “당동벌이(黨同伐異)”로 목은해를 돌아본다. 우리 정치판에서 있었던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야 저들 몫이겠지만, 필자는 원전센터 유치지역 선정사업에서 그런 짓은 이전 접을 때라고 생각한다.

원전센터 부지 선정만큼 오래 끌고 있는 국책사업도 없었을 성 싶다. 지난해 끝날 사업임을 나름대로 단정하고 미리 김치 국을 마셨던 필자도, 새해를 맞고 나니, 을유년을 찾아갈 “닭 쫓던 개” 처지가 되고 말았다. 그 일은 정부가 벌써 20년이나 끌고 오면서 오만가지 후유증만 키웠다. 그 일을 내 고향이 앞장서 해결하길 바라면서 지난 두해동안 상심하던 일들 때문에 되씹자니 속 뒤집힌다. 비록 표제의 고사가 춘추전국시대의 파당들이 벌이던 정치판의 처부로 알려지긴 해도, 원전센터 사업에서 2000년 전의 상황이 지금도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

1986년 영덕을 시작으로, 안면도, 울진, 인천 굴업도 그리고 부안으로 이어지면서, 해당 주민들의 갈등 그리고 정부 불신만 타는 불꽃처럼, 치솟게 키웠다. 문제만 생기면 해당부처 장관은 하루아침에 보따리를 싸다. 새 장관으로 부임하면 자기의 무덤을 파는 일을 다시 시작한다. “열린” 그룹이 정치를 해서 일까? “열린 것”은

“틈새”란 뜻이고, 산업시설에서 “틈새”란 치명적인 결함이다.

왜, 시민 환경단체가 그리도 많은지? 춘추전국시대에 저들처럼 다루기 힘든 단체들이 많진 않았을 것이다. 환경은 복잡한 사안임에는 틀림없겠지만, 40여 개나 장들을 거느리고 저들끼리도 이슈마다 눈을 부릅뜨고 오지랖이다.

갯벌공원 살리자는 새만금, 도룡농 마을을 지키자는 천성산 보호, 원전연료가 다시 타고 폭발한다고 우격다짐한 원전센터... 글썽다. 일터가 아니고 구경하는 타자인 필자야 귀 동양하고 눈요기 하면 되겠지만, 쓰나미(tsunami) 지진해일처럼 감당하기 힘든 저들끼리의 파워게임에 휘말린 주민들은 죽을 맛일 것이다.

지난해를 대표할 “당동벌이”가 고사성어 부분에서 첫 자리매김한 까닭도 원전센터 유치 현장과 무관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작년 원전센터 유치 현장에서 당기필마로 뛰면서 경험했던, 주민들과의 대화에도 그 말이 당연 앞섰다.

앞으로 그 일을 재개할 때 한번쯤은 되짚어 봐야한다. 아직도 그 일은 현재진행형이라 앞으로 어떤 변수가 닥칠지는 아무도 장담 못한다. (다산칼럼)은 정약용 다산이 마흔 살이던, 1801년 전남 강진에서 귀양살이를 시작하면서 틈틈이 아들에게 부친 간곡한 편지사연에도

“당동벌이” 폐해를 곱씹어라 당부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우리 역사는 200년 전에도 그런 일로 정치판을 달궜다니! 언제까지 지속될까? 민족의 숙명적인 정신문화 소산인가?

청와대가 직접 챙겨오던 그 일이 지난 연말 국무총리실로 갔고, 원자력위원회가 또 그 일에 휘말려들었다. “따로 국밥처럼”, 음식물이 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로 합치는데, 중-저준위 쓰레기와 ‘태운원전연료’를 따로 분리시켜 가둠 하자던,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 위원회가 할 일이 그토록 없었던가? 어느 때는 ‘합장’이요, 어느 때는 ‘분리매장’이라니, 원전쓰레기의 본질이 바뀌지 않았는데, 원전에 가둠 하면 안전하고, 원전센터로 가면 폭발한다던 환경단체의 주장을 수용했다니 말문이 막힌다. 이러자면 이대로, 저러자면, 그대로를... 그래서야 국가 원자력 정책에서 헌법제판소와 다름없는 위상이 말씀 아니게 되고 말았다.

에너지 정책은 훨씬 앞선 사야를 조망해야할 터인데, 일이 터질 때마다 자주 원칙을 바꾼다고 말들이 많다. 구성원 각자 권위 그리고 국민의 신뢰도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다. 스스로 부끄러움을 깨달아야 한다.

다음 글은 필자가 지난 2년 동안 원전센터 유치현장에서 단기 필마로 원자력 문화 홍보활동을 하면서 체험한 내용 일부를 담았다. 다행히 울진신문에 기고할 기회가 있었다. 많은 주민들에게 읽히기를 바라서다. 과학자의 소신으로 원자력 세상을 인식하지는 메시지를 담아 현장에 띄웠다.

《울진의 100년 그림은 주민들 손으로 그리자》

- 2005.1.15 울진신문 -

타항살이 하는 많은 사람들은 여기 고정란을 사랑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정감이 넘치는 문장을 올리고, 다른 이들은 실린 글들에 감동하면서 함께 향수를 달랠

것이다. 필자도 예외일 순 없다. 벌써 스무 번째가 올랐다니, 그런 마당을 만드신 울진신문사 편집인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돈의 고갈은 이 땅 어디서나 다를 바 없다. 특별히, 지방 신문발행의 어려움도 신경 써야 될 터인데, 고향으로 부치는 타항살이들의 사연들도 정성스레 살피고 챙겨 만든 지면이라 함께 동참하고 싶었다.

지난 글들이 그 흥피에 잘 정리돼 있어, 모두를 한번 읽어볼 기회가 있었다. 놀랍게도, 고향산천은 시인들도 많이 배출시켰고, 활동하는 기업인들도 많다. 기억나는 글들은 아직도 변함없이 그 모습 그대로인 고향의 푸른 바다, 신선의 정기가 서린 깊은 산골, 티 없이 맑은 시냇물소리, 어머님의 따스하던 손길, 그리고 어린 시절 함께 뛰놀던 친구들, 정감을 나누던 이웃들을 그리워하는, 어느 한 가지라도 뺄 수 없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하루 1억 킬로와트의 울진원전

필자는 원자력을 전공했다. 다른 선두주자들의 글들과는 좀 다르게, 이 고정란에 채워놓을 고향산천의 그림은 원전 얘기가나 사연들을 담고 싶다. 혹여라도 오해를 불러올까 조심심도 난다. 하지만, 20여 년 전부터 울진에는 원전이 세워졌고, 고향의 명암이 거기에 쏠려있다.

작년까지 하루 1억 킬로와트가 훨씬 넘을 전력량을 생산하는 거대한 원전 때문에 고향은 미래가 없는 버려진 곳으로 치부돼왔던, 한때 어둡게 조명된 때도 있었다. 그런 전력량은 어림잡아, 월 300 킬로와트 전력을 소비하는 일천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엄청난 양을 울진에서 만든다. 그런 에너지를 생산하는 고장이란 궁지는 지금 울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2002년까지 필자가 고향을 찾을 때면, 아무 생각 없이 울진원전 주변을 맴돌면서 울진바닥 정서를 애써 외

면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는 없다. 방관자로서는 고향사람들을 대할 면목이 없다는 생각을 지난 두해 동안 하루도 잊어본 날이 없었다.

용기를 내어 3차례나 원전센터 유치를 간청하는 편지도 올렸고, 고향출신 국회의원님께도 한차례 편지를 썼다. 지역주민들은 원전센터 유치를, 절단 날 "사형선고"라 외쳐대도 울진 대표들은 모르쇠로 무심할 뿐이다.

원전-쓰레기를 바르게 알자

필자는 울진신문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다. 이번에 올릴 글도 이 지면처럼, 20회 째다. 거기서는 고향 네티즌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반-핵"이나 "찬-핵"이란 용어들이 서로 함께 만나는 한마당이기도 하다. 오해받는 경우도 있긴 했었지만,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이들도 많다. 필자에게는 그들 모두가 고향사람들이지 남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한때, 정치권에 회자된 독특한 사투리, 경상도 억양인 "우리가 남이가?"를 되새기면서...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을, '원자'를 우리 눈으로는 바로 볼 수 없다. 물질을 이룬 기본단위로 알려진 것이기도 하다. 방사선도 열처럼, 에너지의 하나이기 때문에 센 방사선 아니고서는 오감으로 느낄 수 없다. 인도네시아의 한 섬 주변을 강타한 대지진으로 얼마인지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수십만 여명의 목숨을 진공청소기처럼 쓸어간 "쓰나미(Tsunami)" "지진해일"도 활취고 지나간 흔적들만 남겼지, 파괴력인 에너지의 본질을 본 이는 아무도 없다. 그런 에너지들은 파동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감지할 수 없다.

노안에는 안경의 도움이 필요하듯이, 그것들을 우리 오감으로 느끼려면, 도구인 원자현미경이나 방사능 감시기 그리고 전파 탐지기를 써야 한다. 그런 장치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고심해 만든 고안품들이다.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대상이기에 '방사능 원자(방

사선을 내는 원자)' 그리고 거기로부터 나오는 방사선은 우리에게 공포의 대상으로 치부된다. 원전에서는 피할 수 없는 센 방사능 원자들이 새롭게 만들어진다. 필자는 그것들이나 그들이 묻어진 것을 포함하여, '원전-쓰레기'라 부른다. 이것들이 인심 좋고 물 좋던 울진의 바닥정서를 쓰나미 해일처럼 휩쓸고 갔다.

하지만, 그것들을 '핵폐기물'로 부르는 것은 원전을 잘못 안 오해의 소산일 것이다. 북한을 제외하고, 한반도에 핵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디서 굴러들어온 핵-쓰레기들인지 그렇게 부르짖는 저들은 까닭을 밝혀야 한다. 외지 '반핵단체'들은 별의별 루머들을 지어댄다. 그런 배경에는 보이지 않는 그것들을 부풀려, 그들의 주장들을 퍼가는 데 이용할 수도 있었기에 그동안 이득을 챙겼을 것이다. 전문가들에게는 돌보기가 준비돼있기에 속일 수 없다.

원자를 주민들의 보통 눈으로 어림할 지식만이라도 가진다면, 하는 생각으로 《주승환의 원자력세상 보기》를 시작했다. 때마다, 울진에서 벌어지는 지역 이슈들도 거기에 곁들이다보니 아직도 원자의 참모습을 우리 손에 넣지 못했다. 원자의 모습을 손에 쥐고 나면, '핵폐기물'이란 낯선 용어 그리고 원전도 울진을 삼켜버릴 악마가 아님을 알게 될 것임을 기대해 본다.

100년 이후의 고향을 올바르게 그리자

앞서 얘기대로, 이 난에 실린 글들을 모두 읽었다. 그것들 중에서 특별히 필자의 관심을 끈 것은 바로 직전에 실린, "100년 후 고향의 풍경화"(울진신문, 2004.12.24. 11쪽)이다. 기자의 시각으로 본, 고향의 풍경을 10년 단위로 나눠 대표될 특징들만 그려놓았다. 모두가 공감할 내용들을 짚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100년 후인 "2100년의 풍경"은 필자를 심히 불안케 할, 네거티브 뉘앙스를 강하게 풍긴다. 그 주범은 '원전센터'

유치로 어필됐다.

지금, 어느 누구도 미래 고향의 참모습을 기본대로 성급하게 그려서는 안 될 것이다. 조물주만 알고 있을 고향 미래를 짐승가처럼, 하나의 풍경으로 묘사할 수는 없다. 원전센터는 악마일순 없다. 그리고 폭발할 위험성도 전혀 없다. 두고두고 후회될 시설물은 더욱 아님을 확신한다. 장인 정신으로 바라보면, 속속들이 보이기엔 장담한다. 반대쪽 사람들이 주장하는 수만 년 동안 묻어둔 원전-쓰레기도 아니다. 다만, 지금은 완벽한 처분 방법이 준비되지 않았기에 기술개발 때까지 기다릴 뿐이다. 몇 년 걸릴지는 장담할 수 없다. 아마도 수십 년 안에는 해답을 찾게 될 것이다.

원자력 에너지의 발견을 과학으로 인정한다면, 그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으로 생겨나는 원전쓰레기도 당연히 과학에 맡겨 처분해야 한다. 그럴 수 없다면, 원자력을 과학이라 말할 수는 없을 뿐더러 석탄 에너지처럼, 시대에 따라 유행할 한갓 패션 산업일 뿐이다. 패션은 유행에 따라 편리하게 쓰다버릴 한갓 기교이다. 과학은 인류에게 문화 그리고 편의를 제공할 명제이지, 문제를 남긴다면, 과학이라 말할 수 없다.

'원전센터'란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지어낸 용어일 뿐이다. '원전-쓰레기' 들을 완벽하게 가둬 할 한 시설물이므로, '원전쓰레기 임시저장소'란 말이 더 어울린다. 문제의 글은 "당대의 어른들"이 감당할 "의무"라고 하는 말은 어른들이 함께 원전센터 유치 반대에 동참하자는 소리로 읽게 한다. 그래서 후대의 아들 딸들이 어른이 되어 고향의 품으로 돌아오는 날을 위해서 유보해둔, 그런 미래 풍경을 그려놓았다.

원전센터의 유치 명분

고향을 떠난 이들에게는 고향산천이 삶의 현장은 아닐 것이다. 그들은 그 태고의 모습 그대로 변함없이 영

원히 보존되기를 염원한다. 하지만, 고향에 살고 있는 부모님,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에게는 불꽃이 이글대는 생업현장이다. 그런 곳은 다양한 발전의 물결이 넘실대야 한다. 원전센터 유치의 명분이 그런 것이다.

필자도 고향이 그리울 때면, 태어난 경상도 두메산골인 고성리의 한 마을 전경을 떠올린다. 남대천이 흐르는 강 언덕에 수백 년 묵은 백여 그루의 소나무 밭이 있었다. 필자가 고 2년이던, 1959년, '사라호 태풍'이 칠나에 이를 휩쓸어버렸다. 비록 자연이 저지른 수재였지만, 보전(保全)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지금도 남아있다. 그런 것이 타향살이들에게는 향수를 지배할 우상이다.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고향 생각은 동심처럼 설익은 과실일 뿐이다. 원전센터 유치는 울진이란 과실을 완숙하게 익힐 기회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 시설에 대한 주민의식은 2003년 초부터 많이 바뀌었다. 문제의 글에서도, "지금은 온 동네에 원전으로 꼭 찻다" 반핵하는 한 후배의 탄식을 한말로 압축하고 있었다.

지금은 주민투표로 꼭지를 딸 일만 남겨놓았다. 군수님 개인의 반대는 권력자의 독선이요 오만일 것이다. 님의 역할은 주민 의사를 올바르게 확인할 -찬반 논의를 통한- 주민투표를 성실하게 실시하고 감독하는 그 일 뿐이다.

원전센터 유치는 주민의사로 결정돼야 한다. 그게 법이다. 이 난에 투고했던 한 애향인의 바램처럼, 난마(亂麻)에 시름하는 내 고향 울진을, '괘도난마'로 해결할 희망이다. "희망은 고난의 언어이며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라고 동양고전 독법에 관한 『강의』를 펴낸, 신영복 교수는 썼다. 일회성 엑스포 이벤트가 울진을 살릴 길이 아님을 알면서도 그것으로 미래 울진의 '희망'을 덧칠하려는 일은 한 정치인의 쇼일 뿐이다. 원전센터 유치만이 '희망'의 대안임을 거듭 되새기자.

만금(萬金)을 잃은 허탈

문자 쓰기 싫어하는 필자지만, 이참에,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한마디를 더 보태야겠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목지신(移木之信)” 얘기다. 그 「강의」, 논어 편<신뢰를 얻지 못하면 나라가 서지 못한다>의 소제목에 한 글귀다. 진나라 재상으로 상앙(商鞅)이란 명재상이 있었다. 신상필벌로 국가의 령을 다스린 선구자로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독자들 대부분은 그의 일화인 “이목지신(移木之信)”을 기억할 것이다.

원전센터 건립 부지를 확보하려고, 정부는 지난 20여년 동안 많은 공을 들였다. 특히, 지난 2003-4년 동안은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기울인 두 해였다. 하지만 부안 사태처럼, 양금만 남기고 한발 물러서야 했다. 그 배경에는 정부가 국가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점을 지적한다.

누구의 꿈수인지 모르긴 해도, 담당 공무원은 “○○위원회”란 옥상옥인 자리를 만들고, 거기 앉게 될 위원들을 추천받아 지명한다. 그들은 담당 공무원이 만들어 놓은 정책에 관한 안건들을 주문대로 심의하여 결정한다.

상앙은 그런 핑계 정책을 펴진 않았다. 국가의 신뢰를 단 한 토막의 나무로 회복시켜 놓았다. 대궐 남쪽 문 앞에 한 토막의 나무를 세워놓고 방문을 붙였다. “이 나무를 옮기는 이에겐 白금을 하사 한다” 아무도 달려들지 않았다. 그래서 상금을 千金으로 올렸다. 그래도 반응이 없자, 다시 萬金으로 올렸다. 어느 한 건달이 용기를 내어 “손해 볼 일도 없는데” 하면서 그 일을 치렀다. 약속대로 상앙은 그에게 ‘로또복금’이나 다른 없는 횡재를 안겨줬다는 얘기가.

진나라가 부강강병을 이룬 시발점이 나무 한 토막으로 시작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공무원의 지혜가 모사재인(謀事在人)의 정신으로 무장됐었다는 증거다. 상금을 3천억, 양성자가속기 시설 그리고 한전본사 이전이

란 엄청난 국가부담을 담보해도 묵은해의 원전센터 추진 성과는 상앙의 나무 한 토막보다도 덜 한 꼴이 되고 말았다. “만금”이란 상금을 노렸던 필자는 허탈감에 빠져있다.

“따로국밥”도 상앙의 나무 한 토막 기능만큼, 원전센터 지역 선정에 도움을 줄 리가 없다. 무엇을 잘못 짚어가고 있다. 사실 급한 쪽은 원전의 안전 운전엔 전혀 도움 안 될, 태운 원전연료 관리일 것이다. 안전운전에 거처적거릴 쓰레기일 뿐이다. 열이 식고나면, 바로 다른 안전한 곳으로 옮겨, 전문 관리자가 안전하게 관리할 시급한 처분 대상이다. 마치, 연탄보일러 주변에 연탄재를 쌓아놓는다면, 보일러의 안전운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원전은 오로지 발전만 전념할 논리가 원전센터의 기본 구상인데, 느닷없이 주객을 바꿨다. 전문가로 모인 위원회가 그렇게 결정했다. 그러가지고서는 신뢰를 얻지 못한다. 담당 공무원이 무엇을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아스럽다. 원전센터 현장을 가봐라 그래야 번뜩이는 지혜가 샘솟는다.

(원고 접수일 2005년 1월 13일)

